

중심 계명

마태복음 22:34-46

몇 년 전, 나는 영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작가인 메히디 하산(Mehdi Hasan)이라는 아주 훌륭한 토론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의 책 Win Every Argument: The Art of Debating, Persuading, and Public Speaking을 읽었습니다. 결혼 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아마 이 책을 읽으라고 권유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산이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누군가와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을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주장을 그들보다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2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의 논쟁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들의 종교적 성향,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주장, 그들의 게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종교 집단들이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들이 오늘 우리의 여정의 배경인 수난 주간의 화요일,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통의 목적이 있는데, 즉, 그를 패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국가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모인 캐나다 하키 선수들과 같습니다. 이전 NHL 경기에서 서로 싸웠던 선수들이 갑자기 국기 아래 공동의 적에 의해 뭉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브래드 마샬 (Brad Marchand)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조금이라도 캐닉스 하키 팀을 팔로우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를 응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적입니다!! 😊 .

느슨하게 연합된 종교 지도자들의 한 팀과 다른 한쪽의 예수님 사이의 논쟁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매우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지만, ... 예수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22장 15-3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또한 무익했습니다.

[마 22: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1. 예리한 질문 (이 질문은 ...로 이어짐)
2. 중심이 되는 계명 (이 계명은 ...로 이어짐)
3. 유익한 질문 (이 질문은 ...을 드러내기 위한것)
4. 중심이 되는 한 사람

입니다.

첫째, (1) 예리한 질문(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

[마 22: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종교 당국자들과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질의 시간이나 백악관 언론 브리핑을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상대방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은 정부 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사"는 예수를 폭로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들" (때때로 서기관이라고 불림)은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려는 걸 추구했습니다. 많은 율법사들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데 헌신하는 유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248개의 계명과 365개의 금지 조항 (총 613개)을 포함하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사는 "선생님, 랍비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공손합니다. [마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더 가벼운지 추측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가장 큰 계명을 연마하려고, 즉, 그것에 집중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리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평행 구절들을 보면 적어도 그의 질문에 진지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깊이 연마하려면, 어떤 계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계명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가 십계명 중 하나, 즉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계명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기대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는 **(2) 중심이 되는 계명**,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계명, 모든 독실한 유대인들이 쉼마를 기도할 때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하는 바로 그 계명을 선택하십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쉼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며, 쉼마의 두 번째 부분인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십니다.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새번역)

모든 것이 이 계명에 달려 (의존하고,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은 한 사람의 각각 떨어져 있는 구획이 아니라 겹쳐지는 종류입니다. 다 같이, 한 전 인격을 구성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심으로 헌신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청중들을(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 이 단어들이 실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 내부로 향합니다. 우리는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에 대해 더 오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점점 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마 24:12), 결국, 우리는 내파 됩니다(속으로 붕괴됩니다).

우리는 왜 내파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은 위쪽과 바깥쪽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것에 대해 숙고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도다"(시편 62:1, 베뢰아 성경)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에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의 신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동안 자유롭다고 느낄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되지 않은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며, 그건 오직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에게서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서집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내적으로 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자비로 현존하시며 당신에게 손을 내미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분께 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당신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의미와 소속감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과 영혼과 생각(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전 8: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로 부터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합니다.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15:9-1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만 질문을 받으셨지만,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십니다.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이웃(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일 4:20]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둘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첫째 계명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을 낳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제 나이 19살 때, 내 삶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을 믿기 전,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 자기 몰입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 안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은 쓸모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후, 저는 저를 놀라게 하고 제 회심을 확신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나오지 않은 다른 성향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12-13]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내 친구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은 누가복음 10:25-37에 나오는 유대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여겼고 비유대인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민족 중심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질문을 뒤집어엎으십니다. 이야기에서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강도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그를 버리고 구타한 후 버려둡니다. 그는 반쯤 죽은 채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레위 인이 지나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반쯤 죽은 이 사람을 보자 멈춰서 동정심을 보입니다. 그는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를 돌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는 영원한 진리를 전하십니다.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인가?" 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을 추구합니다.

올해는 재세례파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525년, 스위스의 일부 대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 고백에 잠김으로 침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그들이 받은 침례는, 재세례파 운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윌링던은 그 운동의 일원입니다.

1569년에, 네덜란드의 재세례파 교인, 더크 윌렘스가 그의 신념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는 궁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얼어붙은 연못을 가로질러 달려갈 때, 궁전 경비병이 그를 쫓았습니다. 몸집이 더 큰 경비병이 얼음 아래로 빠져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공홀에 감동되어, 윌렘스는 궁전 경비병을 구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배은망덕한 교도관은 윌렘스는 붙잡아 더 삼엄한 감옥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윌렘스는 결국 그의 믿음 때문에 판결을 받고 기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강요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넘어 예언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율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맺으십니다.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토라(성경의 처음 다섯 권)를 가리키고, 선지자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마 5:17). 문이 경첩에 걸려 있듯이, 구약성경도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설계하신 방식,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불필요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계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명령에서 예수는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기초입니다. 예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우리는 종종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대화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멀지 않다"라는 말이 "천국 안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승천하신 후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행 6:7).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요 19:38-42).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뜻밖의 대답으로 토론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직 모여 있는 동안, 예수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3) 유익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할까요?

42a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후손인 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은 자동적입니다.

42b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왕족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본문 중 하나이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인 시편 110편의 시작 단어를 인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을 다윗 왕이 쓰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고 계십니다. 진정한 쟁점은 세금이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기독교론)이었습니다.

44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주"의 첫 번째 등장은 야훼입니다. 두 번째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다"고 썼습니다. 야훼(하나님)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 다윗 왕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가 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그의 주님(그의 주인)이 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후손인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 최고의 영예와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모든 원수들이 그분께 복종할 것입니다(다니엘 7:13-14).

시편은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으로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을 뿐, 단지 더 위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왕좌는 지상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거부하십니다. 그는 이 땅의 왕이나 군사적 정복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고난 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대군을 이끌고 사람들을 학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실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되가 얼어붙는 순간입니다. 대답 없음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서기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시골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보다 앞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도움이 되는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청중을 **(4) 중심이 되는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 이야기가 달려 있는 분입니다(중심축, 의존). 시편 110:4는 예수가 영원히 제사장,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요 1:1, 14). 그분은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요 8:58)이시며,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골 1:17). 그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요 1:3).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빌 2:6-7).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셨습니다(골 1:15; 히 1:3). 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단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타락하고 부서진 사람들, 우리 자신을 하나로 모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분의 자기희생은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요일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찬식>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빛을 온전히 갠으셨습니다(롬 3:23-25; 벰전 3:18).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삶은 우리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엡 2:11-22).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요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균 같은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의 식탁, 즉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यो,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생명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경축합니다(요 14:6).

배반당하던 날 밤, 예수는 떡을 집어 드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 함께 참여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잔을 받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수의 피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컵을 통로로 건네면서 예배 팀과 함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축도: 고린도 후서 13:14